

고려는 주변 나라와 어떻게 지냈을까요?

수업 목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및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이 차시는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살펴보고 고려와 거란·송·여진의 관계를 알아보게 하였다.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전개

-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알아보기
-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 살펴보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교과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지도상의 유의점

고려의 대외 관계를 주변 나라의 침략과 고려의 극복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수·학습 과정

도입

1 동기 유발하기

- 주변 나라와 항상 사이 좋게 지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주변 나라와 다투게 될까요?
 - 역사 문제로 다투 수 있습니다.
 - 영토 문제로 다투 수 있습니다.
- 주변 나라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상대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 서로 조금씩 양보합니다.
 -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거란·송·여진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보시다.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1

고려는 주변 나라와 어떻게 지냈을까요?

2

이 시기에는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및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후삼국이 경쟁할 무렵 중국의 당이 멸망하였다.

중국 북쪽에서는 거란이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웠다. 이후 송이 중국의 대부분을 통합하자 고려는 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경을 마주한 거란을 경계하였다. 송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위해 고려를 침입하였다.

고려의 일부 신하들은 북쪽 땅을 내어 주고 거란과 화해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희**는 거란 장수를 만나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다(서희의 *답판). 그 결과 거란의 군사는 물러갔고,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4

스스로 활동

서희와 거란 장수의 대화를 보고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한 근거를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답판: 서로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영토인데 고려가 침범하였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너희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압록강 안팎도 고려 땅인데 여진이 그곳을 차지하고 길을 막고 있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면 거란과도 교류할 수 있다.

38

전개

3 거란의 1차 침입과 서희의 답판 알아보기

지도+ 교과서 38쪽에서는 거란과 고려가 압록강 근처에서 충돌하게 된 배경,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목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란은 왜 고려를 침입하였나요?
 - 송과 고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 고려의 서희는 거란의 침입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 거란의 목적을 알아채고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4 스스로 활동 서희의 주장 살펴보기

활동 안내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녕의 대화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주장하였음을 이해한다.

활동 방법 서희와 소손녕의 대화를 살펴보고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한 근거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한다. 이전 차시에서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고 정한 까닭과 연계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고려와 거란은 전쟁을 치렀으나 좋은 관계를 맺고 매년 서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한편 고려의 북쪽에 살던 여진은 점차 힘을 키워 금을 세우고 거란을 멸망시켰다. 그 과정에서 고려와 여진은 갈등을 빚었으나 곧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사신을 보내는 등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다. 고려는 송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고려와 송 사이에는 사신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자주 오갔다.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40쪽에서는 고려가 거란, 송, 여진 등 주변 나라와 서로 사신을 보내며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였음을 알아본다. 그리고 고려가 주변 나라와 어떤 문물을 주고받았는지를 그림과 사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용어 해설

여진 오랫동안 만주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다. 삼국 시대에는 말갈, 고려 시대에는 여진, 조선 후기에는 만주족이라고 불렸다. 수, 당, 발해, 거란 등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지만, 금과 후금, 청 등을 세우며 번성하기도 하였다.

금 12세기 초반부터 13세기 초반까지 중국의 북쪽을 지배하였던 나라이다. 만주 동부의 여진족인 아구타가 1115년에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세웠다.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고려는 주변 나라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였나요?
- 고려는 주변 나라와 어떻게 왕래하였을까요?



정답 > 160 쪽

6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 살펴보기

지도+ 교과서 40쪽에서는 전쟁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 고려와 송, 여진의 관계를 다루었다. 고려와 거란은 전쟁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려는 거란에 매년 세 차례, 거란은 고려에 매년 한 차례씩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100년 동안 거의 빠진 해가 없었다. 고려는 한동안 송과 공식적인 외교를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곧 관계를 복원하였다. 송의 상인들은 거의 매년 여러 차례 고려에 방문하여 수많은 물자를 교역하였다. 고려는 여진과 한때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곧 관계를 회복하였다. 고려는 금과 약 100년 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려는 금에 매년 세 차례, 금은 고려에 매년 한 차례씩 사신단을 파견하였고, 그 기회에 많은 문화 교류가 일어났다. **사회** **생각** **활동**을 통해 고려의 국제 무역상인 벽란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교과서 40쪽 하단의 거울에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 바다를 건너는 배가 새겨져 있습니다.
- 고려는 주변 나라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나요?
- 사신단이나 상인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무역을 하였습니다.

정리

7 학습 내용 정리하기

-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에 대해 말해 봅시다.
- 서희는 담판을 통해 거란군을 돌려보냈습니다.
- 강감찬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 고려는 주변 나라와 오랫동안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 장간! 확인해요**를 풀어 봅시다. **답** ×

8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고려가 몽골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하기

평가 관점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및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상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및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및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및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코리아'를 알린 고려의 국제 무역항, 벽란도

황해도 예성강 근처에는 '벽란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곳은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었어요.

예성강은 물이 깊어 바다를 향해하는 큰 배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해상 교통이 발달했어요. 또한 벽란도는 도음인 개령으로 향하는 입구에 있어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벽란도는 가까운 송, 일본을 비롯하여 먼 지역에서도 찾아온 외국 상인들로 붐볐어요. 이때 벽란도를 다녀간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영국 국립 해양 박물관) 우리나라 이름이 'Corea'라고 표시되어 있다.



41

수업 방법 및 활동

벽란도에 대해 알아보며 고려와 주변 나라의 교류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벽란도와 개령이 담긴 옛 지도를 추가하여 벽란도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게 해도 좋다.

자료 더하기

황해의 교역로

고려와 송의 외교는 962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송 측의 창구가 되는 항구는 산둥반도의 등주였으며, 양국의 사신이 탄 배는 황해를 왕래하였다. 그것이 북방항로이다. 11세기 초 고려는 거란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송과의 외교를 끊었지만, 1070년대에 부활하였다. 그때 송은 강남 지방의 명주를, 고려는 예성강 하구를 각각 창구로 삼아 한반도 서남 연안부를 지나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이용하였다. 그것이 남방항로이다.

— 노명호 외, 『고려 역사상의 탐색』

벽란도

벽란도가 위치한 예성강은 황해도 고달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를 따라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 일대는 산지 지형에 가까워 강의 흐름이 비교적 빠르며 바다에 가까이 있어 조수가 밀려드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물이 깊어 선박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으며, 개성과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벽란도는 고려 시대 제일의 하항이자 국제 항구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벽란도는 고려 시대에 국제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국내에서 벽란도는 개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루터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벽란도」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41쪽은 주제와 관련한 읽기 자료로 구성하였다. 고려 시대에 국제 무역항으로 중요시되던 벽란도를 소개하고 그곳에 송,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서아시아 상인들까지 찾아들었음을 알아보도록 한다.

용어 해설

벽란도 고려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배가 드나들었던 국제 무역항이다. 예성강 하구에 있어 처음에는 '예성항'으로 불렸지만, 점차 외국 상인이나 사신들이 머물던 건물인 '벽란정'의 이름을 본떠 벽란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진 해설

교과서 41쪽의 사진은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 지도 제작자인 블라우(Blaeu, W.)가 그린 아시아 지도이다. 이 지도는 한반도를 섬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지명을 'Corea'라고 표시한 점이 주목된다.



교수·학습 참고 자료

자료 1 고려와 거란의 관계

• 교과서 38쪽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태조 대에 시작되었다. 태조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고 하여 그들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이고 사신을 귀양 보냄으로써 거란과 친교를 맺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양국은 태조의 단절 선언 이후 약 50여 년간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기는 하였으나 고려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았다. 이때 거란은 고려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약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고 강동 6주의 고려 소유를 승인하는 대신 송과의 단교, 거란과의 친교 등 피차간의 요구 조건을 조절하는 선에서 고려와 화약을 맺었다.

서희와 소손녕을 내세워 고려와 거란이 맺은 화의로 고려는 강동 6주를 얻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거란과 경계를 정한 것은 고려의 북진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거란으로서는 북쪽으로 진출해 오는 고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압록강으로 한정시키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강화를 중심으로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후 송을 제압한 거란은 고려도 확실하게 조공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였다. 2차 전쟁을 시작한 거란의 성종은 강조를 살해하고 개경을 함락하였으나 홍화진·구주·서경 등 주요 요새지를 함락하지 못한 채 남쪽으로 내려왔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퇴로가 끊길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군사를 돌이켰다.

고려가 국왕의 질병을 핑계로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거란은 6주 반환을 내세우며 변방을 여러 차례 침략하였다. 그러나 고려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소배압을 보내 고려를 침략하게 하였다. 결국 강감찬 등이 이끄는 고려 군사들의 철저한 방어로 소배압이 이끄는 10만의 거란군이 참패함으로써 양국은 화약을 맺어 전쟁을 종결지었다.

— 동북아 역사 재단 한국 외교사 편찬 위원회,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사 고려 편』

자료 2 서희의 답판

• 교과서 38쪽

993년 거란군이 고려를 침입하자, 미처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고려의 국왕과 신료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하자거나 북쪽 땅을 떼어 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목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려와 송의 외교를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송에 사행한 적이 있어 국제 정세에 밝았던 서희는 거란의 속셈과 한계를 파악하고 협상에 나섰다. 그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는 여진이 방해하여 고려가 거란에 조공하지 못한다고 변명하며, 고려가 송에 대한 사대를 중단하고 거란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 결과 거란에 대한 고려의 사대를 전제로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고려는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인 강동 6주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이 종료된 후 협상의 후속 조치에 따라 성종은 거란의 책봉을 받게 되었고, 만부교 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의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다.

— 한국 중세사 학회,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 시대의 역사』

자료 3 현화사비

• 교과서 39쪽

현화사비는 현종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현화사의 개창을 기념하여 지은 비문으로, 귀주 대첩 직후인 1021년에 세워졌다. 이 비석에는 현종 부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현화사 개창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어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였고,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이 화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북조(거란)에서 거둬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으므로, 무기를 감추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 누리집, 『현화사비』

10~12세기 동아시아에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자리 잡았다. 송과 거란, 이후 남송과 금은 서로를 황제국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양국이 이를 지향해서가 아니라 국력의 우열이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기울어지지 않아서였다. 복수의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은 이들 국가 간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고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세력 균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고려, 송, 거란, 서하 등은 국익을 위해 주변국과 제휴하거나 대립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세력 관계는 서로 연동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하에서 황제국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거란, 금, 송 이외의 주변국들조차 자기 나라 군주에게 천자(황제)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세력권을 형성하여 각기 천하의 중심이라고 인식하였다. 고려도 예외는 아니어서, 독자적인 역사·문화 공동체로서 해동 내지 삼한을 의식하고 군주가 천명을 받아 삼한을 통일한 해동천자를 자임하였다. 해동천하에는 철리국, 탐라국, 우산국 등과 동·서번으로 불린 여진이 속하였다.

— 한국 중세사 학회,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 시대의 역사』

고려의 먹은 송연묵(松煙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거란·송·원과의 무역품에 모두 포함되었다. 고려 사신들은 송에 갈 때 송의 문인에게 주는 선물로 먹을 준비해 가기도 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먹은 1998년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토된 고려 시대의 먹이다. 두 토막이 난 상태로, ‘단산오(丹山烏)’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그 아래 ‘일(一)’ 자 획은 마지막 글자인 ‘옥(玉)’의 첫 획으로, 먹을 갈아 사용하면서 닳고 남게 된 획으로 추정된다. ‘단산(丹山)’은 충청북도 단양의 옛 이름으로, 그 지역은 일찍부터 먹의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오(烏)’는 까마귀라는 뜻으로 ‘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의 벼루도 중국에서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먹을 갈면 파란빛에 흰 빛이 섞여 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진한, 『고려 시대의 무역과 바다』 / 국가 문화유산 포털 누리집,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명 고려 먹』

수업 효과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정리할 때 신문을 만들어 발표하거나 전시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신문의 형식이나 내용은 자유롭게 구성해도 좋으며, 삽화나 사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방법

- ①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와 관련 있는 주제들을 제시하고 각자 글감을 고르도록 한다.
- ② 선택한 글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한다.
- ③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 ④ 기사에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 사료 등을 첨부하여 신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 ⑤ 완성한 신문을 발표하거나 전시해 보도록 한다.

글감 예시

- 거란의 건국과 발해의 멸망
- 거란의 1차 침입
- 서희의 담판
- 거란의 2차 침입과 개정 함락
- 강감찬의 귀주 대첩
- 고려와 거란의 교류
- 고려와 여진의 교류
- 고려와 송의 교류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동북아 역사 재단 한국 외교사 편찬 위원회,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사 고려 편』, 동북아 역사 재단, 2018.
-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초등 스토리 한국사: 세계 속의 고려』
-  국가 문화유산 포털 <https://www.heritage.go.kr/>

1 -2.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 알아보기

반

번

이름:

1 다음 대화를 보고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한 근거를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거란 장수: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영토인데 고려가 침범하였다.

서희: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거란 장수: 너희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서희: 압록강 안팎도 고려 땅인데 여진이 그곳을 차지하고 길을 막고 있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면 거란과도 교류할 수 있다.

2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글감	<input type="checkbox"/> 거란의 건국과 발해의 멸망	<input type="checkbox"/> 거란의 1차 침입	<input type="checkbox"/> 서희의 답판
	<input type="checkbox"/> 거란의 2차 침입과 개경 함락	<input type="checkbox"/> 강감찬의 귀주 대첩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거란의 교류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여진의 교류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송의 교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글감 정리			
활용 자료			

3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소개하는 역사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림이나
사진

1-2.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 알아보기

반

번

이름:

1 다음 대화를 보고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한 근거를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거란 장수: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영토인데 고려가 침범하였다.

서희: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거란 장수: 너희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서희: 압록강 안팎도 고려 땅인데 여진이 그곳을 차지하고 길을 막고 있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면 거란과도 교류할 수 있다.

2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글감	<input type="checkbox"/> 거란의 건국과 발해의 멸망	<input type="checkbox"/> 거란의 1차 침입	<input type="checkbox"/> 서희의 답판
	<input type="checkbox"/> 거란의 2차 침입과 개경 함락	<input type="checkbox"/> 강감찬의 귀주 대첩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거란의 교류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여진의 교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려와 송의 교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글감 정리	고려는 송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고려와 송 사이에는 사신, 상인들이 자주 오갔습니다.		
활용 자료	송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고려의 먹 사진		

3 고려와 주변 나라의 관계를 소개하는 역사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고려의 먹, 송을 사로잡다!

고려는 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고려와 송 사이에는 사신, 상인들이 자주 오갔다. 특히 고려의 먹과 벼루 등의 물건은 송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